

문화 “삼천배 기도로 슬럼프 극복하고 연기의 소중함 다시 찾았죠”

불자 배우 이상욱 씨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유도 소년'은 요즘 대학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극으로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유도 소년'은 1997년 고교전국체전을 배경으로 피 끓는 청춘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불자 배우 이상욱 씨(38)는 '유도 소년'의 코치 등 1인 4역의 멀티맨을 맡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공연 3개월 전부터 복싱과 유도 등을 배우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아무런 작은 역할이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빙산이 보여지는 부분은 작지만 바다 아래에 거대한 산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대사 한마디 풍작 하나를 보여주는 데에도 두터운 산을 쌓아 놓아야만 관객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저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자 배우 이상욱 씨는 '유도 소년'의 코치 등 1인 4역의 멀티맨을 맡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연일 매진 행렬로 인기몰이 중인 연극 '유도 소년' 코치 역으로 열연 불교 소재 연극 연출도 '발원'

지 못했어요. 선배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연기생활 7년만에 얻은 영광의 기회였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혹독한 시련이 불어 닥쳤다. 그후 2년 동안 아무런 역할도 들어오지 않았고 사귀던 여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연기자의 길은 더 이상 자신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삼천배를 결심했다.

"배우의 길을 계속 가야할지를 결정하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면서 삼천배를 준비했죠. 그리고 강원도 양양 휴휴암을 찾았어요. 밤 9시부터 휴휴암 관음전에서 삼천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천배를 넘어서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더 이상 못할 거 같아 좌복에 머리를 대고 드러 있었죠.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상욱아! 그렇게 배우가 하고 싶냐? 그러면 한번 해봐'. 그 말씀에 다시 힘을 내어 절을 했죠."

이렇게 이어진 절은 마지막 200배를 남겨두고 다시 고비를 맞았다. 다리가 끊어질 거 같은 고통에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자책이 밀려왔다. '약속한 삼천배도 다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평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치도록 연기를 하고 싶구나!"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알아채는 순간이었다. 별명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나머지 200배를 했다. 그렇게 무사히 삼천배가 끝났다.

"기도의 가피였는지 그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역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무대에 다시 올라보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그래서 배우는 어쩔 수 없는 제 천직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유도 소년에 끝나면 청소년 뮤지컬 연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 씨는 앞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연극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객들에게 호평 받고 있는 연극 '유도 소년'의 배우들. 왼쪽 첫 번째가 배우 이상욱 씨.



2009년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에서 젊은 도둑 역을 맡아 연기했다.

거룻배 찾아 맑은 휘파람 불고 싶네

나옹 스님의 열반도량

남한강의 유려한 흐름, 그 여정의 절정은 여강(驪江)에 있다.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여주 지경에서는 여강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그 승경(勝景)의 백미는 봉미산 아래 신록사(神勒寺) 일대다. 낮은 산은 절을 품었고 절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품고 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은 동쪽 언덕 높은 전탑(傳塔) 보물 제 226호)과 팔각전자 강월전(江月軒)으로 인해 완성된다.

신록사는 고려 말의 고승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이 열반한 곳이다. 신록사에는 나옹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있다. 또 동쪽 전탑 아래 강을 연결한 커다란 바위 위에 작은 3층 석탑이 있는데 나옹 스님을 화장한 곳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한다.

산과 강이 멀지 않고 그 사이에 소담하게 자리한 절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절경 속의 절경이다. 커다란 암벽에 부딪치는 물결은 잠시도 그침이 없어 절을 찾은 선비들의 시심을 돋우었을 것이다.

나옹 스님의 비문을 쓴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은 신록사를 여러 번 찾았다. 당연히 신록사의 풍경 속에서 시회를 즐겼고, 나옹 스님을 그리워하는 시도 남겼다.

여강형승천하회(驪江形勝天下稱) 사시풍경파천기(四時風景披天機)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여강의 형승 사시 따라 풍경이 천기를 보여주네.

이색은 '여강(驪江)에 모여 술 마시며'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목은집(牧隱集) 제34권에 수록된 이 시는 26행이나 되는데, 강과 절과 산의 풍경 그리고 시주(詩酒)를 즐기는 기쁨, 스님과 선비들이 격의 없이 담론하는 흥취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목은집(牧隱集) 제10권에 실린 '신록사(神勒寺)에 놀러 가려 했다가지 못하고 인하여 단운(短韻)의 시를 짓다'는 제목의 오언율시는 이색이 신록사와 나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한다.

원수장강외(遠出長江外) 소송취석방(疏松翠石傍) 초제개복지(초제개복지(招提開福地) 보제창진당(普濟淸眞堂) 현령민요홀(縣令頻腰笏) 산승독면장(山僧獨面牆) 하당심야정(何當尋野艇) 청소의창방(淸幽倚蒼茫)

먼 산봉우리는 긴강의 바이요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여주 신록사 ①



신록사 극락보전과 다층석탑(보물제225호)

성긴 소나무는 푸른 돌 결이로다. 사찰은 신선(仙)의 경계가 열려있고 보제의 영당은 환하게 트이었는데. 현령은 자주 홀을 허리에 꽂고 산승은 홀로 담장을 향하누나. 어떻게 하면 거룻배를 찾아가서 광활함 속에 맑은 휘파람 불어 불교.

아래에차호강산(來愛此好江山) 종일승주우의란(終日乘舟又倚欄) 수저삼라개불찰(水底森羅開佛刹) 임간은약견선단(林間隱約見仙壇) 지심돈교요전혜(指心頓教遙傳慧) 재사문공후이한(載事雄文酷以韓) 진중노선근수간(珍重老禪勤勸箭) 유제환과후인간(留題還愧後人看)

강산이 하도 좋아 내 기와서 종일토록 배 타고 또 누(樓)에 기웠네. 물 밑에 너울너울 사찰이 서 있고 숲 사이 아른아른 강이 보이네. 지심의 교는 혜사(慧師)에게 전수받고 사적 실은 문장은 한유(韓愈)와 같네. 진중한 늙은 스님이 시를 청하는데 뒷사람이 볼까봐 부끄러운 걸.

이색의 제자로 정몽주 이승인 정도전 등과 함께 수학한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시다. <양촌집(陽村集) 제3권에 '신록사(神勒寺) 판상시(板上詩)에 차운하다'는 제목으로 실렸다.

신록사의 풍경이 좋아 종일 뱃놀이를 하고 누각에 기대어 숲과 강을 바라보며 쉬는 여유로움이 시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뒷부분은 팽팽하다. 혜능(慧能) 대사로부터 전승되어 온 직지인심의 선법(禪法)을 전해 받은 나옹 스님의 행적과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韓愈)에 비하는 문장력을 갖춘 이색의 비문을 상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록사의 역사와 문화를 상기하는 자신에게 스님이 시 한 수를 청하다! 양촌선생은 슬며시 허투루 썼다가는 후세에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괴리를 낮추며 시를 매듭짓는다. 은근하지만 서도 해학적인 양촌의 마음이 재미있다.

시는 풍경으로 시작되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소나무와 푸른 바위가 다 동원되어 신록사 풍경을 그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풍경을 '신선의 경계'로 끌어올리고 '보제(普濟)의 영당이 환하다'는 표현으로 나옹 스님에 대한 그리움과 절의 위엄을 살려냈다.

경련의 '현령은 자주 홀을 허리에 꽂고'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인데, 여주 고을 수령이 경치 좋은 여강에 '집대용 뱃놀이'를 자주 나온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어지는 '산승은 홀로 담장을 향하누나'라는 말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스님들은 세간의 뱃놀이에 아랑곳 않고 면벽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선비들의 시골벽척한 뱃놀이와 절집의 고요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대조되며 시의 긴장감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뒷사람 볼까봐 부끄러워

그러한 시간과 세간의 경계를 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색은 마지막 구절에서 '맑은 휘파람'을 갈망하는 속내를 비친다. 선비의 길이든 스님의 길이든 그 종착은 결국 '거룻배를 찾아가서' '맑은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거룻배는 흐트러짐 없는 정진을 휘파람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